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 속 등장인물의 복식 고찰

이은주 국립안동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

lej580@naver.com

국문 초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덕수6375)에 묘사된 남녀 등장인물의 복식을 분석하고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노신랑은 〈전안례도〉와 〈교배례도〉에서는 평소 관원으로 착용하던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그 외 〈헌수례도〉와 〈접빈도〉, 〈중퇴연도〉에서는 패영 없는 자립에 옥색 포, 홍색 세조대를 둘렀다. 기력아범은 자립에 귀 옆에 묶은 패영을 달고 흉배를 부착한 무문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성인 남자 자손과 하객들은 도포 등 당시의 대표적인 포 종류를 착용하였는데 특히 무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철릭, 직령을 착용하고 붉은 색 띠와 청색 계통의 띠를 신분에 맞추어 착용하였다. 징씨(徵氏) 등 안내자는 중치막과 홍단령을 착용하였으며 어린 동지들과 시동(侍童)은 중치막을 착용하였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총각들은 땀은 머리에 소창의(小釐衣)를 입고 성인들은 전립(氈笠)에 소창의를 착용하였다. 군영 소속의 세악수들은 소색 소창의에 흑색 전복, 그리고 허리에 남색 포대 등 군복을 착용하였다.

둘째, 노신부는 〈교배례도〉에서는 거두미와 초록원삼 차림을 하였고 〈헌수연도〉에서는 남치마·옥색저고리 차림이 확인되었다. 여자 자손들은 어여머리에 비녀와 반자, 진주댕기 등의 칠보장식을 하였고 다양한 색상의 저고리에 남색과 홍색, 옥색 등의 치마를 입었다. 남치마에 초록 장옷을 입은 부인도 확인되었다. 홍치마에 초록색 회장저고리를 입은 〈교배례도〉의 동녀(童女) 4명은 남자머리에 비녀 꽃고 도다익 땀기를 길게 드리웠으며 칠보족두리를 썼다. 비자(婢子)들은 어여머리에 가리마를 썼으며 양반 부인들과 유사한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으나 색상이 연했고 치마의 길이가 짧았으며 치마의 부풀림 정도가 약하였다. 기녀는 양반 부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으나 색상이 덜 화려하였으며 어여머리에는 칠보장식이 없었다.

셋째, 주인공의 자립 착용, 철릭과 직령을 입은 하객들, 군영 소속 세악수 참여 등에 근거하여 회혼례의 주인공이 병조나 군영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군영 악대의 전복의 소매 길이와 잠화 사용, 어여머리의 형태와 땀기, 저고리의 길이와 치마의 부풀림 형태 등에 근거하여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를 1760년대~1780년대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회혼례도첩, 18세기 중후기 조선복식, 전통혼례복, 단령, 원삼

투고일자 2022. 6. 25. | 심사일자 2023. 7. 31. | 게재확정일자 2023. 8. 14.





I. 서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回婚禮圖帖)》(덕수6375)은 조선 후기 혼인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回婚禮) 행사를 기록한 사대부 가의 화첩이다. 조선 시대에는 혼인 후 60년이 지나면 회혼례(回婚禮)를 혼례식처럼 하였다. 이를 중뢰연(重牢宴), 혹은 회근례(回覓禮)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예서(禮書)에는 관혼상제, 즉 사례(四禮)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회혼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회혼례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례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회혼례 관련 첫 기록은 1622년(광해군 14) 이세온(李世溫)이 혼인 60년을 기념하여 동뢰연을 베풀었다고 한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기록이다.¹ 이후 여러 문집에는 회혼례에 대한 찬사와 만수무강을 비는 기록들이 보인다.² 그러나 회혼례가 중국에는 없는 예법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유학자들도 있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기 영조는 회혼례를 치른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풀었으며 정조 역시 회혼을 맞는 이들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은전을 베풀었다.⁴ 회혼례는 마음먹는다고 이를 수는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자손들은 뜻 깊은 날을 맞아 부모의 장수를 축원하였다. 자손들이 모두 결집하는 집안의 뜻 깊은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회혼례와 관련된 회화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 외에 홍계희(洪啓禧,

1703~1771)와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의 《평생도병》 중에 포함되어 있는 〈회혼식〉,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 소장의 〈요화노인회근첩(1848)〉,⁵ 그리고 홍익대학교 박물관 소장 《회혼례도병(1857)》⁶ 등이 있다.

《회혼례도첩》에 관한 연구는 1991년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風俗畫』에 삽입된 짧은 해설⁷과 최근에 발표된 미술사적 고찰⁸이 있다. 최근 복식사적 관점에서 연구⁹가 시도되었다. 그림마다 행사 내용이 다르지만 반복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기에 남녀 복식으로 대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역할이나 신분에 따라 분류하여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화첩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복식 도상을 통한 회화자료의 시대 판정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화첩의 제작 시기와 화첩의 사료적 가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대의 복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회혼례도첩》 속 남자복식

본 연구 대상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덕수6375)은 다섯 면의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절첩장 화첩이다. 그 외에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회혼례도첩 중 〈헌수례도〉 유리건판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1).¹⁰ 《회혼례도첩》에는 행사의 의의를 밝힌 서문이나 참석

1 이종묵, 2009, 「회혼을 기념하는 잔치, 중뢰연(重牢宴)」, 『문헌과해석』 46, pp.60~61.

2 정대영, 2022, 「고문헌으로 살펴본 회혼례(回婚禮) 기록 연구」,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 발표자료집』, 국립대구박물관, p.31.

3 위의 논문, p.28.

4 박정혜, 2022,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1117, pp.171~175.

5 위의 책, pp.184~185.

6 위의 책, pp.190~191.

7 中央日報社, 1991, 『風俗畫』, p.222.

8 박정혜, 2022, 앞의 책, pp.193~205.

9 이은주, 2022, 「《회혼례도첩》 속 복식 고찰」,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 발표자료집』, 국립대구박물관, pp.45~67.

10 회혼례도첩(2023.06.08. 검색),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headerSearch?category=&rows=9&pageNum=1&radioSearchCheck=unifiedSearch&headerSearch=&keywordHistory=%ED%9A%8C%ED%98%BC%EB%A1%80%EB%8F%84%EC%B2%A9&keyword=%ED%9A%8C%ED%98%BC%EB%A1%80%EB%8F%84%EC%B2%A9>.



그림 1 《회혼례도첩》(국립중앙박물관 덕수6375 · 국립고궁박물관 유리건판3477). A: 제1면 <접빈도>, B: 제2면 <교배례도>, C: 제3면 <헌수례도>, D: <헌수례도>(국립고궁박물관, 유리건판3477), E: 제4면 <접빈도>, F: 제5면 <중뢰연도>.

자를 적은 좌목 등이 소실되어 아쉽지만 화견과 안료, 화가의 뛰어난 솜씨가 조선 후기 회화의 수준은 물론, 문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빼어난 작품이다.

복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혼례도첩》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첩의 제1면인 <전안례도(奠鴈禮圖)>는 신랑복이자 관복인 흑단령을 입은 노신랑이 징씨(徵氏 · 親氏)와 기력아범(雁夫)을 앞세우고 교배상이 차려져 있는 안채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제2면 <교배례도(交拜禮圖)>는 안채에 차려진 교배상을 마주하고 혼례복 차림으로 인사를 나누는 노신랑과 노신부, 그들을 에워싼 친인척과 자손들이 축하하는 장면이며 제3면 <헌수례도(獻壽禮圖)>는 평상에 복으로 갈아입은 주인공 노부부에게 자손들이 술잔을 올려 축하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제4면 <접빈도(接賓圖)>는 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제5면의 <중뢰연도(重牢宴圖)>는 주인

공이 하객들과 더불어 삼현육각의 음악과 기녀들의 춤으로 여흥을 즐기는 장면이다.¹¹

1. 신랑

1) 사모관대

노신랑의 사모관대 차림은 전안례(그림 2)¹²를 치르러 가는 장면(그림 3)과 교배례 장면(그림 4), 두 장면에서 확인된다. <전안례도>의 노신랑을 디지털 복원한 <그림 5>를 통해 사모관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전안례(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122). 그림 3 <전안례도>의 노신랑.



그림 4 <교배례도>의 노신랑. 그림 5 <전안례도> 디지털 복원의 노신랑.

11 장진아, 20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사가기록화의 변화」, 『미술자료』 102, pp.71~72.

12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22.

조선시대 혼례에서 신랑은 흑단령을 기본으로 하는 사모관대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날만은 ‘섭성(攝盛)¹³의 풍속에 근거하여 품계를 초월한 최고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재(李穡, 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신랑의 성복(盛服)으로 사모, 단령, 품대, 흑화를 착용한다¹⁴고 하였고 『경도잡지』에는 자초단령(紫綃團領), 서대(犀帶), 복시사모(複翅紗帽)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거가잡고』에 자포와 서대는 대군이나 왕자의 복장¹⁵이라고 하였다. 1791년 혼례 기록인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에도 신랑이 섬사포(閃紗袍)에 반서대(班犀帶), 경화(靛鞵)를 착용하였다¹⁶고 하였다.

《회혼례도첩》 〈전안례도〉와 〈교배례도〉 두 장면에서 노신랑은 사모와 흥배를 갖춘 흑단령, 삼금대, 흑화를 착용하였다. 특히 〈전안례도〉 노신랑은 오른손에 구장(鳩杖)을 들고 있다. 비둘기로 상단을 장식한 구장은 장수와 건강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데, 예로부터 효와 예를 상징하는 기물로서 특별한 신분적 상징성을 가졌다.¹⁷ 조선시대에는 연로한 고관이 치사할 수 없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궤장(几杖)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주인공 노신랑 또한 궤장을 사여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입고 있는 사모관대는 치사하기 전, 본인이 착용하던 관복이었을 것이다. 흑단령에는 운문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당상관임을 말해 준다. 좌측의 옆트임 안으로는 단령의 받침옷인 남색 더그레[加文刺]가 보인다. 당시 단령의 형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



그림 6 〈현수례도〉의 주인공.



그림 7 〈접빈례도〉의 주인공.



그림 8 〈중뢰연도〉의 주인공.



그림 9 자립(높이 20cm, 지름 66.5cm)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13: 26~27).

기념박물관 소장 이태곤(李泰坤, 1672~1763) 묘 단령¹⁸이나 홍감보(洪鑑輔, 1699~1763) 묘 단령,¹⁹ 이익정(李益烜, 1699~1782) 묘 단령²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흑단령의 가슴에는 흰 새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흥배가 보인다. 디지털 복원된 모습(그림 5)으로 유추해 볼 때 입에 문 영지(천도, 모란 등)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에 당상관용 흥배로 명시되어 있는 운학흥배(雲鶴胸背)²¹가 아닐까 한다.

13 朴珪壽, 『居家雜服攷』 內服.

14 『四禮便覽』 卷2, 13a.

15 朴珪壽, 『居家雜服攷』 內服.

16 『靑莊館全書』 卷20.

17 김수진·이은주, 2022, 「조선시대 구장(鳩杖)에 대한 소고」, 『국학연구』 48, pp.77~84.

1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88, 『韓國服飾』 6, p.54.

1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5, 『韓國服飾』 13, p.64.

2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2001, 『韓國服飾』 19, p.119.

21 『續大典』 卷3, 17a.

2) 통상예복

제3~5폭의 <헌수례도(그림 6)>와 <접빈도(그림 7)>, <중뢰연도(그림 8)>에 묘사되어 있는 주인공 노신량은 모두 동일한 편복 차림을 하고 있다. 자립을 쓰고 옥색 포를 입고 포 위에 홍색 띠를 두르고 있다.

(1) 자립

주인공이 쓰고 있는 자립(紫笠)(그림 9)²²은 주인공이 병조(兵曹)나 도총부(都摠府), 그 외 군영(軍營)과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홍색이나 자색 등 붉은 색 계열의 입자는 조선 초에도 확인된다. 세종대에는 홍초립(紅草笠),²³ 세조대에는 홍단립(紅段笠)으로,²⁴ 단종대의 자초립(紫草笠),²⁵ 중종대의 자색종립(紫色鬃笠)²⁶이 확인되는데 중국사신에게 주는 물품이거나 당상관용 관모로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자립이나 주립이라는 색상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개인적인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색상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자립·주립이 시대에 따라 색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재전서』에는 1789년 정조가 현종(재위 1660~1674)의 자립을 썼다²⁷는 기록이 보인다. 그보다 앞선 선조 대에도 자립을 사용하였다.²⁸ 그러나 1793년(정조 17)에는 자립 대신 주립이 유행하였음을²⁹ 알 수 있다. 주립이 계속 유행하자 정조는 주립이 유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1790년대에는 이미 대홍색의 주립이 유행하던 시기이므로 자립이 묘사되어 있는 《회혼례도첩》의 시

기는 1790년대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시위(侍衛)들이 쓰는 주립(朱笠)은 모두 자흑색(紫黑色)이었다. 그래서 안개나 이슬 기운을 쏘여도 색이 변하지 않아 오랫동안 쓸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사치 풍조가 날로 치성하여 예전에 자흑색이었던 것을 지금(1796)은 대홍(大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개나 이슬에 젖고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한 번 반열에 참석하고 나면 곧 색이 변하는 폐단이 나타난다.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애석해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 또한 예전 규례에 의거하여 다시 자흑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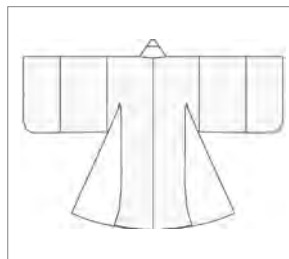


그림 10 도포 뒷모습(©최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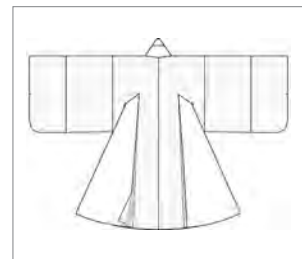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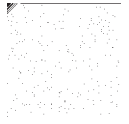


그림 11 직령 뒷모습(©최윤희).

(2) 도포 혹은 직령

한편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옥색 포는 앞 모습만으로는 당시의 대표적인 통상예복이었던 도포(그림 10)처럼 보인다. 도포는 조선 후기 남자의 대표적인 포로, 이중으로 이루어진 뒷자락이 특징이다. 『성호사설』에는 흰색 도포를 가장 존귀한 관복으로 삼아 길사(吉事)나 흉사(凶事)에 통용하였다³¹고 하였으나 『임원십육지

2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13. 『아름다운 기증, 영원한 생명』, pp.26~27.
 23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일(무신).
 24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8일(갑술).
 25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윤6월 1일(을사);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6일(병오).
 26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12일(을유).
 27 『弘齋全書』 卷175, 「日得錄」 15, 訓語 2.
 28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0월 8일(무진).
 29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9월 25일(을묘).
 30 『弘齋全書』 卷169, 「日得錄」 9, 政事 4.
 31 李漢, 『星湖僿說』 卷14, 人事門 祭器祭服.



《林園十六志》에는 길사에 청저포를 입고 제사에는 백마포를 입는다³²고 하였는데 이 포는 곧 도포이다. 흰색은 평상복으로 착용하였고 옥색으로 보이는 청색은 의례복으로 착용하였다. 조재삼(趙在三, 1808~미상)의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따르면 본래 도포는 장복의 반침옷으로 착용하였는데 임란 이후에는 도포의 뒷자락을 제거한 창의를 장복 속옷으로 입게 되었다³³고 하였다. 이러한 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이다. 원종 예장에서 조복의 반침옷으로 초록유문대단도포(草綠有紋大段道袍)를 사용하였다.³⁴ 도포 안에는 대창의를 갖춰 일작으로 입을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³⁵

그러나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색 포가 직령(그림 11)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직령이라면 주인공 노신랑이 무관 출신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사대부는 ‘평상시 도포를 입는데 무변(武弁)은 모두 철릭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이른 시기인 1743년(영조 19), ‘무관이 철릭을 입어야 하는데 직령을 입고 있다.’³⁶고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1750년(영조 26)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기사가 보인다. ‘근래에 무신이 문신처럼 처신하는 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

이 되었다.’³⁷는 기록이다. 그리고 1792년(정조 16)까지도 ‘무관이 직령 입을 것을 금하자.’는 논의³⁸가 있는 것을 보면 무관의 철릭 착용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철릭보다는 직령 착용이 만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관이 철릭 대신 직령을 입었듯이, 길짐승흉배를 사용해야 하는 무관이 날짐승흉배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된다. 무관이 문관흉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1734년(영조 10) 무관이 문관의 학흉배(鶴胸背)를 사용한 경우이다.³⁹ 무관 초상화를 통해 문제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유(李萬維, 1684~1750) 장군 초상 중에는 사자흉배가 그려진 초상도 있으나 운학흉배가 그려진 초상⁴⁰도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무관 신의직(申義直, 1789~1825) 초상⁴¹에도 서대에 쌍학흉배가 그려져 있다.⁴² 따라서 주인공이 무관이라 할지라도 <전안례도>나 <교배례도>에 표현된 주인공의 운학흉배가 설명될 수 있다.

(3) 흉조아

옥색 포의 허리에는 3품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붉은 색의 띠[紅條兒]⁴³를 둘렀다. 양 끝에 술이 달린 세조대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헌수례도>와 <접빈도>, <중퇴연도>에 표현된 주인공의 자립은

32 『林園十六志』 「瞻用志」 卷3 服飾之具 4. 道袍

33 趙在三, 『松南雜識』 警衣.

34 『元宗禮葬都監儀軌』(奎 13518), pp.180, 202; 丁若鏞, 『與猶堂全書』 文集 卷9, 議 庶人服議.

35 황문환 외,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207.

36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3월 14일(무진).

37 『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 3월 23일(병인).

38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2일(임진).

39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12월 6일(정미).

40 이만유[검색일 2022. 8.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41 이강철 외, 2003. 앞의 책, pp.494~495.

42 신의직 초상화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조 대 초기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평산신씨 문중에서 신홍주(申鴻周, 1772~1829) 초상과 함께 나온 초상이 확실하다면 신홍주의 아들이 아니라, 1783년(정조 7)까지 『일성록』에 기록되어 있는 신홍주의 아버지, 행 부호군 신대준(申大僑, 연대 미상)의 초상이 아닐까 한다.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2일(기해),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43 『經國大典』 卷3, 14a.

주인공의 직책 또는 경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조대의 색상은 품계를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2. 기력아범

혼례에서 신랑은 전안례(奠鴈禮)를 치르기 위해 붉은 보자기에 싼 기러기를 안은 기력아범[雁夫·雁人·執雁]을 앞세우고 간다. 대체로 기력아범은 다복한 인물이 맡아 하는 것이 통례였다. 정조 대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안부는 주립(朱笠)을 쓰고 흑단령을 입는다.’⁴⁴고 하였다. 1680년(숙종 6) 명안공주의 가례 때는 기력아범(執雁)을 충찬위가 맡아 하였는데 당상장복(章服)인 홍배 갖춘 흑단령에 옥관자, 흑사피화자를 착용하도록 하였다.⁴⁵ 또한 19세기 왕손가례 때는 흑단령에 쌍학홍배를 하고 은대를 두르도록 하였다.⁴⁶ 이렇듯 왕실 가례에서는 안부가 관복 차림을 하고 사가



그림 12 기력아범.



그림 13 패영.

에서는 주립과 흑단령을 착용함으로써 혼례의 등위에 따라 기력아범의 복장에도 차등이 있었다.

《회혼례도첩》〈전안례도〉속 기력아범(그림 12)은 수화(首花, 簪花)를 꽂은 자립에 홍배를 단 흑단령을 착용하고 흑화를 신고 있다. 기력아범은 자립을 쓰고 있는데 자립의 갓끈 패영(貝纓)(그림 13)⁴⁷을 왼쪽 귀 옆에 둥글게 말고 있는데 이는 길어진 갓끈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영조 대 풍원(豐原) 조공(趙公)⁴⁸이 당시 길어진 패영을 오른쪽(귀)에 늘어뜨리자 영성군(靈城君)⁴⁹이 따라 하였다.’⁵⁰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풍원 조공과 영성군은 1750년대 초 균역법의 절목을 통하여 양역의 합리적 개혁을 이룬 소론계 인물들이다.⁵¹ 기력아범의 갓끈 처리방식은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가 18세기 중기 이후임을 말해 준다.

한편 기력아범의 흑단령에는 무늬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 정3품 이하의 인물로 추정된다. 기력아범의 흑단령의 깃이 얇게 파였으므로 18세기 중기 모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력아범의 허리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하관용 품대를 들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징씨

일반적으로 혼례 행렬에는 기력아범 앞으로 행렬을 인도하는 징씨와 등룡을 든 이들이 가는데 《회혼례도첩》〈전안례도〉에는 등룡 든 이는 보이지 않는다. 징씨 4인(그림 14)만 그려져 있다. 18세기 세속에 징씨는

44 『京都雜誌』, 卷1, 婚儀.

45 『明安公主嘉禮謄錄』, 19b.

46 李昞應, 1870, 『吉禮要覽』(奎4135).

47 국립민속박물관, 2003, 『조선양반생활의 멋과 美』, p.141.

48 조현명(趙顯命, 1690~1752).

49 박문수(朴文秀, 1691~1756).

50 『林下筆記』, 卷28, 笠纓有辨.

51 조현명(2023.07.10., 검색),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1%B0%ED%98%84%EB%AA%85>.

반드시 초립[黃笠]에 청의(青衣)를 입는다⁵²고 하였는데 청의는 중치막이다.⁵³ 이들은 모두 수화 꽃은 초립에 초록색 중치막과 남색 도포를 입고 청흑색 계통의 다회 띠를 둘렀다. 종아리에는 행전을 치고 흰 버선에 흑혜(黑鞋)를 신고 있다.

초립은 징씨 외에 관례를 치른 동자[草笠童]가 혼례를 올리고 갓을 쓰기 전까지 썼으며 액예(掖隸, 별감)가 쓰기도 하고⁵⁴ 견마배, 유가(遊街) 때 광대가 쓰기도 하였다.⁵⁵ 초립은 송도의 물산으로 유명하였는데⁵⁶ 왕골이나 대오리로 만들었다. 조선후기 초립은 양태 가장자리는 살짝 뒤집히듯 위로 향하였으며 모정은 약간 움푹하게 제작하였다. 모정의 중심에 둥근 홍색 전(甁)을 올려붙여 장식하기도 하였다.⁵⁷

녹색 중치막의 형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이태곤 묘 출토 중치막⁵⁸이나 이익정 묘 중치막⁵⁹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소매는 넓고 좌우 양옆이 트인 세 자락 옷이다. 도포는 노신랑의 통상예복으로 설명하였듯이, 초립동 역시 통상예복으로 도포를 착용하였다.



그림 14 전안 행렬 인도자 4인(초록색 중치막, 남색 도포).

4. 빈자

《회혼례도첩》 중 〈전안례도〉의 안채 중문 안에는 인로(引路)인 빈자(賓者) 2인(그림 15)이 전안례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노신랑 행렬을 맞이하려고 서 있다. 평생도병 중에는 전안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 신랑 행렬 장면이 빠지지 않고 그려져 있는데, 신부 측에서 나온 분홍단령을 입은 인로(그림 16)⁶⁰가 신랑을 신부집으로 안내한다. 갓에 분홍단령을 착용한 모습이 관아 밖 서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회혼례도첩》의 〈전안례도〉에 보이는 분홍옷을 입은 인로 역시 서리의 복장과 유사하게 분홍단령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갓 대신 초립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집안의 젊은이들이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5 〈전안례도〉의 안채 중문 안에서 노신랑을 맞이하는 빈자 2인.



그림 16 신랑을 인도하는 빈자 2인(국립중앙박물관 2002: 91).

5. 동자

〈교배례도〉에는 초례청의 노부부를 친인척과 후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또 〈현수례도〉에도 역시 주인공의 자손과 친인척들이 모여 앉아 술을 올리고 음식을 나눠 들고 있다. 귀하고

52 『星湖全集』卷48 雜著, 嫁女儀.

53 비변사, 1753, 『貢弊』, 조영준·최주희 역해, 2019, 아카넷, p.35.

54 『五洲衍文長箋散稿』 권45, 『笠制辨證說』; 이은주, 2022, 『조선시대 관아 원역의 관모 종류와 형태』, 『韓國服飾』 48, pp.43~44.

55 『京都雜志』卷1 風俗, 遊街.

56 빙허각이씨, 1809, 『閨閣叢書』, 鄭良婉 역주, 2012, 寶晉齋, p.425.

5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52.

5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88, op. cit., p.54.

5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2001, op. cit., p.119.

60 국립중앙박물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p.91.



그림 17 <헌수례도> 동자.



그림 18 <접빈도> 동자.



그림 20 땡은머리·중치막(시자) 또는 도포 차림(동자).



그림 19 17세기 해평 윤씨 묘 어린이 중치막(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8: 13).

성대한 의식인 만큼 모두 성장(盛裝) 차림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땡은머리를 내려뜨리고 있는 어린 동자들과 초립을 쓴 초립동, 그리고 흑립에 옥색 포를 착용한 성인들로 구별된다.

<헌수례도(그림 17)>와 <접빈도(그림 18)> 속 주인공 우측 옆에 앉아 있는 어린 동자는 깃과 겨드랑 아래로 옆선에 이색 무장식이 있는 녹색의 포를 입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다. 어린 동자들의 허리띠는 벽사를 의미하는 붉은색 띠를 둘렀다. 포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깃과 옆선의 이색 장식이 17세기 해평 윤씨 어린이 묘에서 출토된 동자 중치막(그림 19)⁶¹과 유사하다.

서 있는 동자들은 머리를 땡아 내리고 검정색 당기를 드리웠다. 동자들이 착용한 옷은 중치막과 도포



그림 21 초립·도포 차림 그림 22 흑립·도포 차림(성인 후손). (초립동).

로 짐작된다. <전안례도>의 행렬 끝에 있던 이 동자는 시자(侍子)이다. <접빈도>와 <중로연도>에서도 주인공 곁에 구장을 들고 서 있다. 구장을 들고 있는 동자의 모습에서는 확실하게 광수(廣袖)에 옆트임이 있는 중치막이 확인된다(그림 20).

다른 동자들에게서는 옆트임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트임이 안 보이는 옷은 도포일 가능성도 있다(그림 20). 중치막과 도포 모두 동자들의 예복으로 적절한 복식이다. 당 위에 올라와 있기에 신발은 벗은 상태므로 행전과 버선만 확인된다. 초례청에 있는 초립동은 초립에 도포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21).

6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0, 『남아 미라 및 출토 유물 논총』, p.13.

6. 하객

하객들은 주로 <접빈도>와 <중퇴연도>에 묘사되어 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와 후배들이 회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일 것이다. 남자들만 모인 외진찬에 해당한다. 하객 성인 남성들은 모두 흑립을 쓰고 있다. 흑립을 쓴 성인 남성들은 세 종류의 포를 입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도포 외에 철릭과 직령이 보인다.

1) 도포 착용 하객

흑립은 재료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죽사로 만든 모자와 양태 위에 말총을 씌운 최고가의 종립(鬃笠, 馬尾笠), 그 다음으로 견사를 씌운 사립(斜笠), 사 직물로 짠 사립(紗笠), 모시나 포로 짠 포립(布笠) 등이 있었다. 재료는 흑립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객이 쓰고 있는 흑립의 대우 높이는 대략 18cm 정도로 보이며 양태 너비는 60cm 내외로 보인다.

일반 사대부 하객들이 착용한 포는 도포(그림 22)로 추정되는데 도포 안에는 대창의를 입었을 것이다. 대창의 안에는 장유(長襦), 즉 소창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허리에는 흑색 계통의 세조대 또는 광다회를 띠었다.⁶²

2) 철릭 착용 하객

주인공 가까운 자리에는 철릭과 직령을 입은 하객들이 있다. 주인공과 가까이 지낸 인물 중에 무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3, 24>는 <접빈도>에 묘사된 철릭 차림을 한 하객들이다. <중퇴연도>에도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복식 차림으로 참여하고 있다. 허리띠는 광다회인지 포백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품계는 짐작할 수 있다. 또 <중퇴연도>에는 흑립에 청철릭을



그림 23 철릭 차림의 당상관 하객.



그림 24 철릭 차림의 당하관 하객.



그림 25 이창운 초상의 대모 장도(국립중앙박물관 2011: 44).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공간 밖에서 있는 인물도 있다.

철릭을 입은 세 사람 모두 흑립을 쓰고 있는데 패영 없이 견영(絹纒)으로 묶고 있다. 철릭의 소매는 넓고 상의는 짧아 허리 주름이 가슴 위까지 올라온 형태로, 18세기 중후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철릭 형태는 홍감보 묘 철릭⁶³과 이익정 묘 철릭⁶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색 철릭을 입고 앉아 있는 이는 홍색 띠를 둘렀고 녹색 철릭을 입은 이는 아청색 띠를 두르고 있어 3품 이상과 4품 이하 또는 당상관과 당하관임을 짐작케 한다. 두 사람 모두 띠에는 왼쪽 겨드랑이 앞으로 띠돈을 걸었다. 소매에 가려 분명하지는 않으나 장도(長刀)를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영조 초기의 이삼(李森, 1677~1735) 초상에는 허리띠에 띠돈 없이 대모

62 丁若鏞, 『與猶堂全書』文集 卷9, 議 庶人服議.

63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1995, 앞의 책, p.64.

64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1, 앞의 책, p.138.

장도를 걸었지만⁶⁵ 정조 대의 이창운(李昌運, 1713~1791) 초상(그림 25)⁶⁶에서는 백옥 띠돈에 대모 장도를 걸고 있다. 이 역시 《회혼례도첩》이 18세기 중기 이후의 작품임을 짐작하게 한다.

3) 직령 착용 하객

〈그림 26, 27〉은 직령 차림의 하객들이다. 직령은 깃 모양만 제외하고는 단령과 같은 형태이다. 좌우 옆트임이 있고 앞뒤 옆트임에는 각각 연결된 무가 있는데 그 형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두 하객이 무의 상단 끝을 뾰족한 삼각형으로 만들어 좌우 등에 고정



그림 26 직령 차림의 당상관 하객. 그림 27 직령 차림의 당하관 하객.

한 직령을 입고 있다. 대체로 무에 단추를 달아 고정하거나 간단하게 꿰매어 고정하였다. 조선전기에는 대표적인 옷옷으로 직령을 입었으나 17세기 이후 점차 착용이 줄어들었다. 대신 조선후기에는 도포를 옷옷으로 입게 되었으며, 직령은 방립과 함께 상주들의 외출복으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령은 영조대와 정조대에 무관들이 철릭 대신 즐겨 입었던 옷이기도 하다. 이 모임에 일반 선비나 사대부는 도포를 착용한 것으로 볼 때, 직령을 착용한 하객 역시 철릭을 착용한 하객과 마찬가지로 무관으로 추정된다. 직령을 착용한 두 인물 또한 허리띠 색상이 홍색 계통과 흑색 계통⁶⁷ (그림 28)⁶⁸으로 구별되어 신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색 띠를 두른 인물의 자리가 주인공과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숙수노

〈집빈도〉에서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이들은 집안의 종자(從子)일수도 있으나 외부인일 수도 있다.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어 숙수노(熟手奴)라고 칭하고



그림 28 당상관 홍색 계열 세조대, 당하관 청색 계열 세조대(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240).



그림 29 땃은머리·소창의.

65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 돌베개, p.246.

6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p.44.

67 당상관의 허리띠는 홍색이나 자색 등의 난색(暖色) 계통을 사용하고, 당하관은 아청색, 청색, 녹색, 흑색 등의 한색(寒色) 계통을 사용하였다.

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40.



그림 30 전립·소창의.



그림 31 《중퇴연도》의 삼현육각 세악수.

자 한다. 그들은 성인과 총각으로 구분되는데 어린 총각들은 주로 그릇을 나르고 성인 남자들은 여러 음식을 담은 원반을 나르고 있다.

총각들은 땀은머리에 소창의(小釐衣)를 입었고(그림 29), 어른들은 전립(飯笠)에 소창의를 입었다(그림 30). 이들은 모두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소창의의 앞자락을 교차시켜 뒤로 돌려 묶고 있다. 종아리에 행전을 치기도 하였으며 신발은 모두 초혜(草鞋)를 신었다.



그림 32 《중퇴연도》의 세악수의 군복.



그림 33 김홍도 《무동》의 세악수 군복(中央日報社 1991: 182).

8. 세악수

《중퇴연도》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군복 차림의 세악수(細樂手) 6명이 연주를 하고 있다(그림 31). 소위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악기 편성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삼현육각에 의한 새로운 음악 문화는 군영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화면 우측으로부터 피리 2,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삼현육각의 모습이다.⁶⁹ 이런 편성을 ‘육잡이’ 또는 ‘육잡이’라고 불렀다.⁷⁰

17세기 군영에서 만들어진 삼현육각 구성의 세악수는 반군반민(半軍半民)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군

영 소속이기도 하고 도가(都家) 소속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도가에 대령하고 있다가 3일에 한 번씩 입번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모두 동원되었다. 정규적인 군사 훈련도 받았다. 근무 수당도 있어, 정규직은 아니지만 군영에서 일정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군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⁷¹ 그러나 군영 밖에서는 도가라는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군영에 따라서는 도가가 있어서 오군영에 오도가가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대방이라는 감독기관이 있고 도패두(都牌頭), 즉 악장이 총괄하였다.⁷² 《중퇴연도》에 보이는

69 이숙희, 2007, 『조선 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pp.194~195.

70 삼현육각[검색일 2022. 8. 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71 이숙희, 2007, 앞의 책, pp.211~213.

72 위의 책, pp.218~219.

삼현육각의 연주자 6인은 군영의 악대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대 기록에 총융사 이우항(李宇恒, 미상 ~1722)이 군문의 세악수를 거느리고 과거에 오른 연인가(連姻家)에서 종일토록 잔치를 벌렸다는 기록⁷³이 보인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더욱 군영과 연관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뢰연도〉의 세악수는 안에 소창의를 착용하고 위에 흑색의 뒤 트인 반수의(半袖衣)를 입고 있는데 전복(戰服) 또는 괘자(掛子)일 것이다(그림 32). 허리에는 남색의 포대를 두른 것으로 보인다. 띠의 끝이 뾰족하지 않아 전대(戰帶)는 아닌 듯하다. 전복의 소매와 뒤 트임의 길이는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추정)의 〈무동(舞童)〉⁷⁴에서도 군복(그림 33)과 편복 차림의 삼현육각 연주자들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무동〉에 보이는 전복 소매보다 〈중뢰연도〉 세악수의 전복 소매가 길며 뒤트임의 길이도 허리 아래로 내려온다는 점에서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는 김홍도 활동 시기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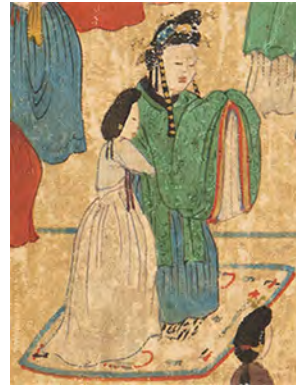


그림 34 신부와 수모.



그림 35 신부의 큰머리와 큰머리 칠보.



그림 36 신부 원삼의 문양과 색동·한삼.

Ⅲ. 《회혼례도첩》 속 여자복식

1. 신부

1) 큰머리 · 원삼

〈교배례도〉의 여자 주인공인 신부는 어머머리에 가체를 얹은 큰머리(擧頭美)에 초록원삼을 착용하였다(그림 34).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은 『瓶窩集』에서 “지금 내명부와 신부(婚女)가 거두미에 초록원삼을 입는다.”⁷⁵ 하였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노신부는 거두미로 추정되는 높게 올린 머리에 크고 작은 봉잠(鳳簪) 5개를 꽂고 취우(翠羽, 물총새털) 반자와 금

반자를 장식하였다. 짧고 가는 두 가닥의 뒷망기와 함께 대봉잠(大鳳簪) 좌우로 감아 내린 가늘고 긴 부금 앞망기도 드리웠다. 또 부인의 예복으로 유물(有紋) 초록원삼을 입었는데 소매 끝에는 홍·황색의 두 색동과 한삼, 즉 삼색연(三色緣)이 장식되어 있다(그림 36).

2) 족두리 · 치마 · 저고리

〈현수례도〉의 신부 노부인은 큰머리칠보를 제거하고 단순한 비녀 하나를 꽂고 커다란 족두리를 썼다. 머리 뒤 쪽에는 가는 망기 두 줄이 그대로 오른쪽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다. 옥색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고 있다(그림 37).

73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2월 18일(계사).

74 中央日報社, 1991, 『風俗畫』, p.182.

75 李衡祥, 『瓶窩集』 卷5, 書, 答尹孝彥別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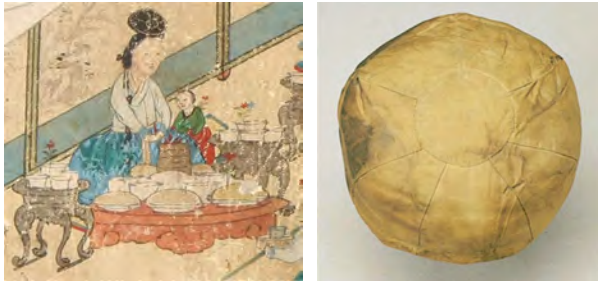


그림 37 <현수례도>의 주인공 노부인. 그림 38 1722년 안동 권씨 묘 족두리(경기도박물관 2001: 44).

신부가 쓰고 있는 족두리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안동 김씨(1664~1722) 묘 출토 족두리(그림 37)⁷⁶와 형태가 유사하다. 안동 권씨 묘의 족두리 지름은 18cm, 높이는 7~8cm로 앞이 약간 낮다.⁷⁷ 『이재난고(頤齋亂藁)』의 1788년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족두리는 높이는 10~13cm, 둘레는 중앙 58cm(지름 18.5), 아래는 35cm(지름 11cm)이다.⁷⁸ 『이재난고』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족두리가 오히려 안동 권씨 묘 족두리보다 큰 셈이다.

『야곡집(冶谷集)』에 “족두리는 광해군 중년 이후 검은 비단[玄錦]에 솜을 넣어 만들었는데 7개의 조각에 둥근 조각을 정수리에 붙인다. 이마 부분의 조각이 가장 짧다.”⁷⁹고 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왕실 하례 행사에 참여할 명부들의 복식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여 임인년 예에 의거하여 양이엄(涼耳掩)에 당의(唐衣)를 입고 입시하도록 하라⁸⁰는 기록이 보인다. 임인년이란 1602년(선조 35) 선조와 인목왕후의 혼례를 말하며 양이엄이란 족두리를 말한다. 이보다 앞선 16세기에 족두리가 존재하였다.⁸¹ 이처럼 족두리는 일찍이 존재했기 때문에 노부인이 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17세기 젊은 부인들은 당시 새로운 유행인 어여머리에 칠보장식

을 한 반면, 노부인은 안동 권씨가 사용하던 것처럼 부인이 젊었을 때 사용하던 족두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족두리를 쓰는 머리모양[宮樣結]은 추고(椎髻)이다.⁸² 추고란 머리 위에 만든 상투형의 머리를 말한다. 족두리 안에 솜이 들어있으나 빈 공간이 있으니 추고 위에 족두리를 얹으면 족두리가 고정될 수 있다. <현수례도>의 노부인 역시 추계형의 머리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삼을 벗고 원삼 안에 입었던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선후기나이든 부인들의 기본적인 복장이다. 소매 끝동은 남색으로 하고 저고리 길이는 나이나 체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8세기 전기 안동 권씨(安東 權氏, 1664~1722) 저고리의 경우는 45cm(그림 39)이고 후기 한산 이씨(韓山 李



그림 39 1722년 안동 권씨 묘 저고리(화장 76cm, 길이 45cm, 경기도박물관 2001: 31).



그림 40 1772년 한산 이씨 묘 저고리(화장 66cm, 길이 35cm,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6: 54).

76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44.

77 위의 책, p.373.

78 金知娟, 2008.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1.

79 趙克善, 『冶谷集』 卷10, 三官記 目官, 29b.

80 『광해군일기(중초본)』 29권, 광해 2년 5월 7일 신해.

81 이은주 · 하명은 · 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韓服文化』 10(1), pp.151~152.

82 李漢, 『星湖先生全集』 卷26 書 答安百順.

氏, 1712~1772) 모 저고리는 35cm이다(그림 40). 즉 18세기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저고리 길이가 35~40cm 정도로 짧아짐을 알 수 있다.

2. 수모

신부의 오른편 곁에는 어여머리의 부인이 신부를 부축하고 있다. 어여머리에는 두 가닥의 짧고 가는 뒷댕기만을 드리우고 있을 뿐, 특별한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옅은 옥색 저고리에 옅은 색의 치마를 입고 있다. 머리 장식이 없는 점이나 옷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신분이 낮은 수모(首母)(그림 34)로 짐작된다.

3. 하객

〈교배례도〉와 〈헌수례도〉에서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한 노부부의 며느리나 딸들, 그리고 친인척 여성들일 것이다(그림 41). 머리에 수화를 꽂고 비녀와 칠보, 진주덩이를 장식하였다.

노부인 앞쪽 좌우에는 홍라주(紅羅珠)를 들고 있는 네 여인(그림 42)이 보인다. 나주는 나조(羅照), 나촉(羅燭·刺燭)이라고도 하였다. 혼례 때 초례청을 밝히는 초의 일종인데 홍육촉(紅六燭)과 홍팔촉(紅八燭)을 통상 '나조'라고 하였다. 특히 육촉은 길이가 3자, 지름이 4푼이다. 황랍(黃蠟), 법유(法油), 정완(正甌, 갈대) 3개, 저상지(楮常紙) 1장으로 만들었다.⁸³ 〈교배례도〉의 나주는 3자, 즉 대략 60cm 정도의 홍육촉으로 추정된다. 나주를 든 여성들은 가체를 더한 어여머리에 색상을 한 쌍씩 맞춘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네 명 중 두 명은 남색 끝동과 자적색 회장을 한 초록저고리에 홍치마를 입었고 다른 두 명은 남끝동을 단 자적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었다.

나주를 든 부인 가까이에 어여머리에 자적색 깃을 단 초록색 장옷을 입은 부인(그림 43)이 서 있다. 장옷



그림 41 〈교배례도〉의 부인들.



그림 42 〈교배례도〉의 홍라주를 들고 있는 부인들.

은 애초에 입는 옷이었으나 18세기에 들어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였다.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의 '떡리(霧離)⁸⁴ 향을 보면 왜 너울이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성호가 말하는 '떡리'란 '너울'을 말한다. 성호의 조모께서 출입에 쓰셨던 떡리가 상자 속에 남아 있다고 한 것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너울을 사용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즘엔 모두 옥교(屋轎)를 타서 궁인의 종만 떡리를 쓴다고 하였다. 즉 옥교를 타는 풍습이 만연하면서 너울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 입던 장옷을 머리에 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장옷을 착용한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83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奎 13102), p.171.

84 李漢, 『星湖僊說』 卷6 萬物門, 霧離.



그림 43 장옷 입은 부인.



그림 44 부인들 어머머리의 칠보장식.

〈현수연도〉에는 가체를 두른 어머머리에 칠보 장식을 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그림 44). 어머머리의 ‘어여’는 ‘두른다’⁸⁵는 의미이다. 즉 머리에 채발을 두르는 것을 말한다. 머리의 밑동은 붉은 땡기로 감싸고 가체를 더해가면서 땡은 머리를 머리 주변에 둥글게 서린 후 비녀를 가로로 꽂아 고정하였다. 그리고 옆에는 3~4개의 진주, 혹은 옥꽂이로 장식하였다. 비녀 아래에는 양 끝에 옥판이나 진주 등으로 투심(套心) 장식한 가는 두 줄의 땡기가 늘어져 있다. 두 줄의 땡기를 포함하여 비슷한 머리 모양은 1730년 《이원기로회계첩》의 기녀 모습(그림 45)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1748년 〈석천한유도〉의 기녀 머리모양(그림 46)⁸⁶과도 유사하다. 1730년



그림 45 1730년 《이원기로회계첩》의 기녀 머리모양.



그림 46 1748년 〈석천한유도〉의 기녀 머리모양.

의 그림에서는 땡기가 좀 길게 표현되어 있고 1748년 그림에서는 약간 짧아진 땡기가 보인다. 〈현수연도〉 부인의 머리모양, 땡기 모습과 유사한데 단지 〈현수도〉의 부인들은 고객(高官) 댁의 여인들이므로 땡기와 머리에 칠보장식이 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체와 가체 치장은 18세기의 고질적인 사치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1758년(영조 34) 부녀자의 가체를 금하였으나⁸⁷ 6년 후에 가체를 다시 허용하였다.⁸⁸ 『정조실록』⁸⁹에 따르면 홍인한(洪麟漢, 1722~1776)이 ‘궁양(宮樣)’이란 말로 저지하여 가체 금령이 철회되었고 그것이 정조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788년(정조 12) 10월, 드디어 정조는 영조의 뜻을 받들고 사치를 없애기 위해 다시 가체 금령의 결단을 내렸다. 서울에서는 동짓날부터, 지방은 관문(關文)이 도착한 후 2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장(家長)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가체 대응으로는 족두리를 사용하게 하였고 절대 장식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정황을 볼 때 1758년에 금지시킨 가체머리가 1763년부터 다시 허용됨에 따라 1788년까지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혼례도첩》의 화려한 가체

8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86 정병모, 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p.268.

87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1월 13일 경자.

88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1월 9일 임술.

89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머리를 볼 때, 대략 1763~1788년 사이의 모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모습을 통해 18세기 중엽⁹⁰ 또는 18세기 중반에서 후반⁹¹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머리에 꽂은 잠화(簪花)의 경우, 1759년 영조 가례 때 잠시 중단되었던 잠화가 1765년(영조35) 즉위 40주년 기념 진연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⁹²고 보면 《회혼례도첩》의 제작 추정 시기가 1765~1788년으로 좀 더 좁혀진다.

한편 초례청 위에 서 있는 부인들은 다양한 색상의 저고리를 입고 있다. 초록색과 옥색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두록색, 노랑색, 자적색, 분홍색으로 확인된다. 회장저고리의 경우, 자적색 저고리 외에는 자적색 회



그림 47 <점괘> 속 바지형 짧은 무지기(中央日報社 1991: 182).



그림 48 《사계풍속도병》 제1폭 〈사당연희〉 속 바지형 긴 무지기(국립국악원 2004: 156).

장을 많이 사용하였고 끝동에는 남색을 사용하였다. 초록색은 주로 견마기나 당의에 흔히 사용되는 색인데 남색 끝동을 단 일반 저고리로 묘사되어 있다. 집안의 의미 있는 잔치에 견마기를 입지 않고 이처럼 일반 저고리를 입었다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치마는 남색 치마가 가장 많고 그 외에 다홍색 치마, 옥색 치마를 입고 있다. 치마는 허리 아래로 부풀려 있는데 속옷으로 속속곳과 바지 위에 무지기[無足衣]를 입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무지기는 치마 형태이지만 18세기 회화자료에서는 바지 형태의 무지기가 보인다. 김홍도의 <점괘>에도 장옷을 머리에 얹은 평상복 차림에 바지 위에 짧은 바지형 무지기를 입고 있는 부인(그림 47)⁹³이 보인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사계풍속도병》의 제1폭 <사당연희>(그림 48)와 제3폭 <후원유연>에 그려진 부인의 걸어 올린 치마 아래에서도 걸어진 바지형 무지기⁹⁴를 볼 수 있다. 시기로 보았을 때 <교배례도>나 <헌수례도> 등에 보이는 부인들도 치마를 부풀리기 위해 짧은 길이의 무지기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동녀

동녀(童女)란 결혼하지 않은 어린 미혼여성을 말한다. 실녀(室女), 재실녀(在室女), 재실자(在室者)라고도 하였다. <교배례도>의 초례청 인물 중 좌우로 둥근 머리를 하고 긴 비녀를 꽂은 네 명의 인물이 보인다(그림 49). 회장을 한 초록저고리에 홍치마를 착용하였다. 치마 안에는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무지기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네 동녀들은 별생머리에 도투락 댕기를 얹어 길

90 정병모, 2000, 앞의 책, p.273.

91 장진아, 2022, 앞의 논문, p.84.

92 유재빈, 2019, 「궁중행사도와 의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연향과 채화(綵花): 진화의식과 잠화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38, pp.87~88.

93 中央日報社, 1991, 앞의 책, p.182.

94 국립국악원, 2004,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 II』, 민속원, pp.150, 156.



그림 49 <교배례도> 동녀의 예장.



그림 50 <교배례도> 동녀의 칠보족두리와 도다리 땡기.

게 늘어뜨리고 투심 장식을 한 앞땡기, 동글납작한 족두리를 엮었다(그림 50). ‘별생’⁹⁵이란 ‘별린 생머리’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별생머리는 남자머리[娘子雙鬢]라고도 하였는데 처녀들의 예장용 머리모양을 말한다. 좌우로 동글게 머리를 말아 만들어 비녀를 꽂았다. 『병와집』에는 실녀(室女)가 화관(花冠)을 쓴다고 하였는데 <교배례도>의 실녀들은 보패로 장식한 칠보족두리를 쓰고 있다. 칠보족두리는 당시의 화관일 가능성도 있다.⁹⁶

5. 비자

비자(婢子)란 집안의 허드레일을 하는 여자들이



그림 51 비자들의 치마·저고리 차림.



그림 52 가리마를 엮은 어머머리.

다. 《회혼례도첩》 속에 매폭마다 비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남자들의 잔치 구경도 자유롭다. 양반 부인들과 다른 점이다. 같은 형태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으나 색상에서 양반 부인들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그림 51). 양반 부인들의 옷은 산뜻하고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었으나 비자들의 옷은 색상이 엷다. 치마도 부풀지 않았고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며 치마도 걷어 올려 바지자락이 보이기도 한다.

머리모양은 가체 없이 본인의 밑머리를 이용하여 머리에 둘렀을 것이다. 칠보장식도 전혀 없다. 머리를 고정하는 데에 사용된 가는 두 가닥의 땡기만이 보인다. 대신 양반 부인들과는 달리, 머리 아래에 뽕족하게 올라온 것이 있는데(그림 52) 가리마(加里巾)로 추정된다.

95 손미경, 2004, 『한국여인의 鬢자취』, 이한, p.339.

96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일(기축).

6. 기녀

기녀는 제5면 <중뢰연도>에 보인다(그림 53). 앉아 있는 기녀 세 명과 서서 춤을 추고 있는 두 명의 기녀가 등장한다. 치마·저고리 차림이 양반 부인이나 비자와 차이가 없다. 색상은 양반 부인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비자들보다는 좀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저고리는 두록색, 초록색, 자적색, 옥색 분홍색으로 양반 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란색 저고리만 없을 뿐이다. 저고리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붉은 속고름이 보인다. 치마는 옥색과 남색으로 확인되며 다홍치마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기녀들로 보인다. 머리모양은 양반 부녀와 마찬가지로, 두 가닥의 땀기를 늘어뜨린 어여머리이지만 비녀만 꽂았을 뿐 다른 칠보장식은 하지 않았다.



그림 53 <중뢰연도>의 기녀들.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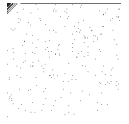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덕수 6375)의 5면에 묘사된 남녀 등장인물의 복식을 밝히고 아울러 복식의 조형성을 통해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를 밝혀보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조선후기 사대부가에서 치러진 회혼례 행사의 절차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복식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주인공 노신랑은 두 종류의 복장을 갖추었는데 <전안례도>와 <교배례도>에서는 본인이 평소 착용하였던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사모와 운학홍배를 단 운문 흑단령, 삼금대를 갖추었다. <헌수례도>와 <접빈도>, <중뢰연도>에서는 패영 없는 자립에 옥색 포(도포·직령)를 입고 포 위에 당상관용 홍색 세조대를 둘렀다. 주인공이 자립을 썼기에 병조나 군영과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둘째, <전안례도>에 등장한 기력아범은 패영을 단 자립에 홍배를 부착한 무문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전안 행렬의 징씨(徵氏)는 수화를 꽂은 초립에 초록색 중치막과 남색 도포를 각각 입고 청흑색 계통의 다회피를 두르고 종아리에는 행전을 쳤으며 흰 버선에 흑혜(黑鞋)를 신었다. 안채 중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측 빈자(賓者) 2인은 초립을 쓰고 분홍 포를 입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통해 단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신랑 곁에서 구장을 들고 있는 시동(侍童)은 땅아 내린 머리에 남색 중치막을 입었고 노신랑 옆에 앉아 있는 어린 손자는 깃과 옆무 등에 이색 장식을 한 중치막을 착용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둘렀다. 초립을 쓴 동자는 초록 도포를 착용하였다.

넷째, 갓을 쓴 성인 남자들은 연한 옥색 도포를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모두 한색 계통의 실띠나 포대를 둘렀다. 또 패영 없는 흑립에 남색 철릭 입은 자와 녹색 철릭을 입은 자가 있었는데 남색 철릭에는 홍색 띠를 두르고 초록 철릭에는 검은 띠를 둘러서 무관 당상관과 당하관임을 알 수 있었다. 허리끈에는 띠돈이 걸



려 있었는데 장도를 매단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령 차림의 하객도 있었는데 영조 대와 정조 대에 무관들이 철릭 대신 즐겨 입었던 옷이므로 직령을 입은 하객 역시 철릭을 입은 하객과 마찬가지로 무관으로 추정했다. 직령을 입은 두 인물 역시 허리띠 색상이 홍색 계통과 흑색 계통으로 구별되어 당상·당하의 신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접빈도〉에서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숙수노 중 총각들은 모자 없이 땅은 머리에 소창의(小擎衣)를 입었고 어른들은 전립(鬮笠)에 소창의를 입었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소창의의 앞자락을 교차시켜 뒤로 돌려 묶은 것이 특징이다. 종아리에는 행전을 치기도 하였으며 신발은 초혜(草鞋)를 신었다.

여섯째, 〈중퇴연도〉에는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연주하는 군복 차림의 연주자 6명이 있었다. 연주자들은 소색 소창의에 흑색 뒤트임의 반수(半袖) 전복이나 패자, 그리고 허리에 남색 포대를 둘렀다.

일곱째, 노신부는 〈교배례도〉에서 큰머리에 칠보장식을 하고 초록원삼을 입었으며 〈헌수연도〉에서는 커다란 족두리를 쓰고 남치마·옥색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여덟째, 〈교배례도〉와 〈헌수례도〉에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한 노부부의 며느리나 딸들, 그리고 친인적 여성들은 가체를 더한 어머머리에 비녀와 반자, 진주댕기 등을 장식하였고 선명하고 고운 색상의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초록색, 옥색, 두록색, 자적색, 분홍색, 노랑색 저고리에 남색과 홍색, 옥색 치마 등을 입었다. 남치마에 초록 장옷을 입은 부인도 확인되었다.

아홉째, 〈교배례도〉의 실녀(室女) 4명은 별생머리에 긴 비녀를 꽂고 도다익 댕기를 길게 드리웠으며 칠보족두리를 썼다. 처녀의 예복인 홍치마에 초록색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한편 비자(婢子)들은 양반 부인들

과 유사한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으나 색상이 연했고 치마의 길이가 짧았으며 부풀림의 정도가 약하였다. 그리고 어머머리에는 가리마를 더하였다. 〈중퇴연도〉에 등장한 기녀 역시 치마·저고리 기본 차림은 양반 부인이나 비자와 유사하였다. 단지 색상은 양반 부인보다 덜 화려하였으며 머리모양은 같았으나 칠보장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열 번째, 잠화(簪花, 首花)는 행사 진행자나 노부부의 직계 가족들 위주로 꽃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의 자립, 철릭과 직령을 입은 하객들, 군복 차림의 연주자 참여 등에 근거하여 《회혼례도첩》의 주인공이 병조나 군영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단령의 얇은 깃파임과 군영 소속 세악수의 전복 소매 등의 길이, 여인의 치마·저고리 모습과 머리모양, 장식 등에 근거하여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를 1760년대~1780년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9월 1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한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居家雜服攷』
- 『經國大典』
- 『京都雜志』
- 『吉禮要覽』(奎4135)
- 『明安公主嘉禮謄錄』
- 『瓶窩先生文集』
- 『瓶窩集』
- 『四禮便覽』
- 『星湖僊說』
- 『星湖僊說』
- 『星湖先生全集』
- 『星湖全集』
- 『續大典』
- 『松南雜識』
- 『冶谷集』
- 『與猶堂全書』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奎 13102)
- 『五洲衍文長箋散稿』
- 『元宗禮葬都監儀軌』(奎 13518)
- 『林園十六志』
- 『靑莊館全書』
- 『林下筆記』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44, 373.
- 국립국악원, 2004,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 II』, 민속원, pp.150, 156.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22.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40.
- 국립민속박물관, 2003, 『조선양반생활의 멋과 美』, p.141.
- 국립중앙박물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p.91.
- 국립중앙박물관, 2011, 『조선화의 비밀』, p.44.
- 김수진 · 이은주, 2022, 『조선시대 구장(鳩杖)에 대한 소고』, 『국학연구』 48, pp.77~84.
- 金知娟, 2008,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1.
-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88, 『韓國服飾』 6, p.54.
-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5, 『韓國服飾』 13, pp.64, 66.
-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2001, 『韓國服飾』 19, pp.119, 135~136, 138.
-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0, 『남아 미라 및 출토 유물 논총』, p.13.



참고문헌

- 박정혜, 2022,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1117, pp.171~175, 184~185, 190~191, 193~205.
- 비변사, 1753, 『貢弊』, 조영준 · 최주희 역해, 2019, 아카넷, p.35.
- 빙허각이씨, 1809, 『閨閣叢書』, 鄭良婉 역주, 2012, 寶晉齋, p.425.
- 성균관대학교, 2013, 『아름다운 기증, 영원한 생명』, pp.26~27.
- 손미경, 2004, 『한국여인의 髮자취』, 이환, p.339.
- 溫陽民俗博物館, 1988, 『朝鮮時代의 冠帽』, pp.15, 89.
- 온양민속박물관, 2015, 『옷, 삶의 품격을 담다』, p.94.
- 유재빈, 2019, 「궁중행사도와 의궤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연향과 채화(綵花): 진화의식과 잠화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38, pp.87~88.
- 이강칠 외, 2002,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현암사, pp.410~41, 494~495.
- 이숙희, 2007, 『조선 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pp.194~195, 211~213, 218~219.
- 이은주, 2022, 『《회혼례도첩》 속 복식 고찰』, 『혼회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 발표자료집』, 국립대구박물관, pp.45~67.
- 이은주, 2022, 『조선시대 관아 원역의 관모 종류와 형태』, 『韓國服飾』 48, pp.43~44.
- 이은주 · 하명은 · 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韓服文化』 10(1), pp.151~152.
- 이종묵, 2009, 『회혼을 기념하는 잔치, 중외연(重牢宴)』, 『문헌과해석』 46, pp.60~61.
- 장진아, 20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사가기록화의 변화」, 『미술자료』 102, p.84.
- 정대영, 2022, 「고문헌으로 살펴본 회혼례(回婚禮) 기록 연구」, 『혼회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 발표자료집』, 국립대구박물관, pp.28, 31.
- 정병모, 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pp.268, 273.
-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 돌베개, p.246.
- 中央日報社, 1991, 『風俗畫』, p.182, 222.
- 황문환 외,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207.

-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 국사편찬위원회, <https://sjw.history.go.kr/>
- 나무위키, <https://namu.wiki/>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nalysis of Clothing in a Painting Album of a 60th Wedding Anniversary Feast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EE Eunjo

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Cultural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lej580@naver.com

Abstrac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outfits of male and female characters depicted in the “*Hoehonryedocheop*” (回婚禮圖帖, Deoksu 6375) hel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estimating its production date of the “*Hoehonryedocheop*” are as follows.

Firstly, an elderly groom is depicted wearing a patterned *heukdanryeong* (黑團領) with rank badges, a garment commonly donned by government officials in works such as “*Jeonanryedo* (奠鴈禮圖)” and “*Gyobaeryedo* (交拜禮圖)”. And the old groom in “*Heonsuryedo* (獻壽禮圖)” “*Jeobbindo* (接賓圖)” and “*Jungroeyeondo* (重牢宴圖)” is shown wearing a *jarip* (purple hat) without a *paeyoung* (ornamental jewelry strap), accompanied by jade colored robe with a red strap belt. *Gireokabeom* (雁夫) is observed wearing a *jarip* (紫笠) adorned with a *paeyoung* (貝纓) and a patternless *heukdanryeong* with rank badges. Adult male descendants are depicted wearing *dopo* (道袍), while guests wear *dopo*, *cheolrik* (帖裏), and *jikryeong* (直領), accompanied by red and blue straps denoting their social status. *Jingssi* (徵氏), *sidong* (侍童), and young grandchildren are observed wearing *jungchimak* (中赤莫). The young servants are wearing *jungchimak*, and the boys carrying the food have braided their hair and worn *sochangu* (小髻衣), while adults servants wore *jeonrip* (髻笠) and *sochangui*. Performers are seen clad in a *sochangui*, *jeonbok*, and a blue sash around their waists.

Secondly, the elderly bride is portrayed wearing a *keunmeori* (ceremonial headdress) and a green *wonsam* (圓衫) in “*Gyobaeryedo*,” while in “*Heonsuyeondo*,” she is depicted in a blue skirt and a jade colored *jeogori* (赤古里). Women descendants are shown adorning headdress decorations, such as *binyeo* (簪), *banja* (斑子) and pearl *daenggi* (眞珠唐紵) on their *eoyeomeori* (於于味, ceremonial headdress). They are further dressed in skirts of navy, red, and jade hues, paired with various-colored *jeogori*. Additionally, a woman wearing a navy skirt and a green *jangot* (長衣) is also depicted. The *dongnyeo* (童女, unmarried women) wear *beolsaengmeri* (娘子雙髻, headdress) with long *binyeo* and long *dodaik-daenggi* (都多益唐只). They wear *chilbo-jokduri* (七寶簇頭里) and a red skirt with a green *hoejang-jeogori* (回裝赤古里). *Bija* (婢子) wears *garima* (加里个) on her *eoyeomeori* and is seen dressed in skirts and *jeogori* resembling those worn by noble women, albeit with lighter colors, shorter skirt length, and a subdued volume. *Ginyeo*'s attire bears similarities to that of noble women, although with a dress with less vibrant tones and devoid of decorations on the *eoyeomeori*.

Thirdly, based on the main character's *jarip*, along with the *cheolrik* and *jikryeong* worn by the guests, as well as the performances by musicians of the military camp, it is suggested that the main character of the 60th wedding anniversary is connected to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or the military camp. Judging by the military band's short-sleeved vest, the silhouettes of the women dress, and the headdresses, it is likely that the “*Hoehonryedocheop*” was produced between the 1760s and 1780s.

Keywords the painting album of a 60th wedding anniversary Feast, mid-18th century dress in Joseon, traditional wedding dress, *Dallyung*, *Wonsam*

Received 2023. 6. 25. | Revised 2023. 7. 31. | Accepted 2023. 8. 14.

